

새 위원장 인터뷰 ▶1면서 계속

“오바마와 동갑이지만, 초등생 딸의 아빠이기도”

소통에 대해 걱정들 하시는데 젊은 후배들 무리에 끼어 그 활력 슬금슬금 흡실 생각. 늙다리라 피하지 마시고 자주 얼굴 봅시다



-2015년 노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년연장 협상과 사장 선거, 임금 협상 등의 현안이 있다. 이 중 준비과정이 술잡게 필요한 것이 정년연장 협상일 것이고 그 준비에만 몇 달이 걸릴 것 같다. 노조 안팎의 굵직한 현안보다는 출마하면서 여러 번 말 씌드렸듯이 우리 일터가 팍팍팍팍 곱틀거리는 조직, 피가 통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역동적인 소통기제의 복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이런 저런 현안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소통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과정에서 각 국실별로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선거운동 과정에 글로 보고드렸지만 국실별, 직종별, 연령별로 각기 다른 색깔의 의견들을 접했다. 무거운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고용안정에 대한 회구, 사내 다른 국실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들었다. ‘기밀 언덕이 없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무엇보다 정년연장 협상과 관련한 기대와 우려가 많았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지만 젊은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날 것으로 접했을 때 일종의 충격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고받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선거운동 과정의 의견 청취는 세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들겠다”

-올해 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노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명을 듣고 싶다.
“사장 선거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역할은 없다. 늘 그랬듯이 사원주주회가 주관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노조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합원들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대목이 있다면 이 역시 들여다보겠다.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거가 진행된다면 노조는 나설 이유가 없거나 나설 권한도 없다. 다만 사장 선거와 무관하게 경영권 감시는 노조가 해야 하는 핵심 임무 중 하나다. 그 임무를 외면하지는 않겠다”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임금,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가.
“일단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해야겠다. 정확한 현주소를 안 뒤 목표를 설정해야겠지만 임금과 복지 중 특히 일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 사세가 비슷한 신문사 3-4개를 묶어 그 평균임금과 보상체계를 감안해서 일종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임금 협상에 임할 생각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짙다. 노와 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사측은 효율과 경영사정을 들이대겠지만, 노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노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떤 협상이건 100 대 0의 결과는 없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협상에서만큼은 배수진을 치더라도 100 대 0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올해 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노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명을 듣고 싶다.
“올해 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노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명을 듣고 싶다.”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한 기대도 크다.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임금,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가.
“일단 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현황부터 파악해야겠다. 정확한 현주소를 안 뒤 목표를 설정해야겠지만 임금과 복지 중 특히 일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 사세가 비슷한 신문사 3-4개를 묶어 그 평균임금과 보상체계를 감안해서 일종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고 임금 협상에 임할 생각이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짙다. 노와 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서 있다. 사측은 효율과 경영사정을 들이대겠지만, 노조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겠다. 고용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노조가 있을 이유가 없다. 어떤 협상이건 100 대 0의 결과는 없겠지만,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협상에서만큼은 배수진을 치더라도 100 대 0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올해 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노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명을 듣고 싶다.
“올해 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출마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일부는 노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해명을 듣고 싶다.”

옥상에 노천카페 어떨까요

송윤경 여성부장
편집국 미디어기획팀



“언제든 편하게 찾아갈 수 다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아이디어인데, 노조 옆 옥상공간에 간이 지붕을 씌워 반폐쇄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노천카페같은 걸 아끼자기하게 꾸미고 플리마켓도 종종 열거나 하면 어떨까요”

편집국·비편집국 ‘같이’

박은하 총무부장
편집국 주말기획부



“23기 노조에서는 편집국과 비편집국간 교류 및 사내문화가 복원됐으면 합니다. 또 출판국 처우와 역할이 강화되고 운전국과 제작국의 크고 작은 부상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독실위 시스템도 개선하고 젊은 조합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 누가 퇴직하고 나가시는지 미리 알아서 인사할 기회도 만들어 주세요”

22기 집행부가 새 노조에게

문제있습니다

“스포츠경향 마감 단축... ‘닥치고 희생’ 해야 하나”

취재, 편집, 운전 조합원들 업무 강도 눈에 띄게 높아져 프로야구 안 신는 스포츠치과연 경쟁력 있을까

올해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경향 마감시간 단축이 조합원들의 근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영수지 개선과 온라인 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이 별도의 보상없이 조합원들의 더 많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원성이 나온다.
지난 1일부터 편집국 스포츠부 조합원들의 기사 마감시간은 오후 6시로 대폭 당겨졌다. 이전에는 오후 10시 넘어서도 기사를 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6시가 넘으면 지면 마감은 끝이 난다. 운전국 조합원들도 오후 6시30분이면 작업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이전에는 저녁 식사 뒤 잠시 휴식을 하던 시간대다.
지면마감이 오후 6시 한차례로 조정되면서 편집국 조합원들은 밤 사이 벌어진 경기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만 전송한다. 운전국 조합원들은 농민신문을 찍는 월, 수, 금요일에는 다음날 새벽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한

다. 이전에는 농민신문을 분지 마감전에 2개 라인으로 찍었지만 이제는 그중 1개를 스포츠경향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경향 마감시간은 2010년7월 세계일보에 넘겼던 스포츠경향 인쇄를 올해부터 경향신문 운전국이 다시 맡기로 결정되면서 변경됐다. 사측은 세계일보에 주던 대쇄료를 아끼기 위해 마감시간을 대폭 당겨 우리 운전국에 인쇄를 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까지로 되어 있던 세계일보와의 인쇄계약도 파기했다. 사측은 “별도 위약금 없이 세계일보 측에 3개월 전 사전통보만 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반발했다. 사측이 2010년에는 운전국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세계일보로 인쇄를 넘겼다가, 4년만에 사전협의도 없이 다시 스포츠경향 인쇄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운전국의 한 조합원은 “일을 더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더 할 수도 있다”며 “프로야구의 비중은 겨울철 스포츠인 농구, 배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계일보로 넘길 때 생긴 양금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편집국 조합원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졌다. 오전부터 끊임없이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쏟아낸 뒤 저녁에는 경기가 벌어지는 현장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 달 편집국 인사에서 스포츠부 인원은 오히려 1명 줄었다.
무엇보다 지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스포츠신문인데도 간밤에 벌어진 경기결과를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측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현장의 우려는 다르다. 특히 프로야구가 시작하는 3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스포츠부의 한 조합원은 “야구결과를 보지 않고 미리 만들어 보낸 기획기사는 현장에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프로야구의 비중은 겨울철 스포츠인 농구, 배구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편집국 조직개편

‘디지털 역량강화’에 또 한번 방점...선임기자위원회 신설도

사측이 신년을 맞아 단행한 편집국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역량강화’ 방점을 다시 한번 밝혔다.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 재배치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 빠르게 변하는 외부 변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조합원들이 눈여겨보는 포인트다.
사측은 지난해 12월31일 발표한 ‘조직개편 통보’에서 편집국 산하 콘텐츠에디터와 주말기획부, 스포츠경향 콘텐츠 편집장을 신설했다. 콘텐츠에디터 산하에는 사진부와 교열부, 주말기획부를 뒀다.
사측이 내건 조직개편 목표는 ‘모바일 퍼스트’이다. 온라인상에서 웹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였다면 이제는 모바일에 70%를 투

자하고, 나머지를 SNS와 웹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스팀의 이름도 모바일팀으로 변경했다.
신설된 콘텐츠 에디터는 미디어기획팀, 디자인팀 등과 협업해 ‘그놈 손가락’ ‘우경본색’ 같은 온오프 통합 콘텐츠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간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주말기획부는 주말판 앞 면 기사를 발굴하고 다른 부서에서 쓰는 주말기획(4페이지)의 관리도 맡는다.
반면 지난해 8월 발표된 ‘미래위 온라인 소위 보고서’에서 확대 편성될 약속했던 미디어기획팀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미디어기획팀이 ‘미래위’가 기대하는 대로 경향 디지털 인력의 인큐베이

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편집국 내에 선임기자위원회도 지난 5일 새로 생겼다. 강기성 편집에디터가 위원장을 겸임하는 위원회는 선임기자 선정, 직무평가, 관리의 맡을 예정이다. 박래용 편집국장은 5일 부장회의에서 “위원장은 선임기자들의 여러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들을 전달 받는 채널,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며 “그동안 보직부장을 마치면 기계적으로 선임 호칭을 부여해왔는데 향후 선임기자위원회가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일부 정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는 소급 적용치 않고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전하세요

전국언론노조연맹·전국언론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제14대 및 전국언론노동조합8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일정이 14일부터 시작했다. 인노련·언론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규약 제39조 및 선거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제35조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제14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제8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14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위원장·수석부위원장 후보를 등록할 수 있고, 후보자

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당선자는 다음 달 9일 언론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투표로 확정된다.
인노련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임후보하는 조는 5개 이상의 가맹노조 또는 산별본부, 지부, 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으로부터 10명 이상씩, 총 10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언론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임후보하려면 5개 이상 본부, 지부, 분회에 소속된 언론노조 대의원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차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올해 3월1일부터 시작된다.

한편 민주노동총회초의 직선제 위원장으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이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7-23일 실시한 결선투표에서 18만2249표(51.6%)를 얻어 17만801표(48.4%)를 획득한 전제환 후보조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2015년, 노동자의 단결로 세상을 바꿨시다”란 제목의 신년사에서 “민주노동조합원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며 “80만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투쟁으로 혁신하는 민주노동총을 만들자”고 말했다.